

(가칭)경기 문화예술 대축제 TF 4차 회의('22.02.24)

□ *****

- 경기예술대축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지역문화예술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논의에서 시작하였음
-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은 축제로써의 아이덴티티, 지속가능성, 매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청년, 프린지의 도전적 문제의식을 예술에 담아보자는 것임
- 첫 번째 고민은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를 할지 여부와,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만 대상으로 할지 여부임
- 에든버러 페스티벌 등 해외 사례 발제를 살펴본다면 축제의 성격과 방식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고, 더 나아가 연구용역에서 다룰 구체적인 목표, 방법,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게 될 것임
-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자생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주는 아트마켓 플랫폼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키우고, 지역과 관계를 맺고 시민의 이야기들을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참여적임
-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로 유명하며 축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사회에 관여하여 주민과 같이 아젠다를 발굴하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함

□ *****

-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제를 정하는 것이고, 그 다음은 경기도만의 축제로 갈 것인지 글로벌한 축제로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함
- 축제 프로그램의 목표가 대중문화로 갈 것인지 도민의 문화향유를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, 도민의 의견이 중요함
- 사업 주체는 경기예술대축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할 것인지, 문화종무과에서 주도할 것인지, 경기문화재단에서 할 것인지 사업주체를 분명히 해야 함
- 축제 프로그램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에든버러 페스티벌 형식, 국내의 생활축제와 같은 형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규모 경기도민의 바램으로 정하는 것이 해답임

□ *****

- 경기예술대축제를 기획하는 것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경기도민들에 대한 바람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임
- 축제를 만드는 취지에 경기도의 정체성이 있는데, 다른 용어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만 아직은 경기도에서 축제의 마당을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예술과 함께 문화를 가져가야 할 것 같음
-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인 사이트들을 목록화해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 도자문화, 능묘문화, 왕실문화, 근현대 건축예술, 의제의 성격을 가진 평화와 공존 등이 있음
- 축제를 추진하는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먼저 목록화하고 이것을 시작으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가진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음
- 축제와 관련한 사례들을 공부할 때 광역시 단위의 적절한 축제사례(성공·실패사례 포함)를 찾아보고 지역단위의 축제를 아우르면서 경기도라는 이름으로 묶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

□ *****

-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과 프린지 페스티벌은 관객의 차이는 있지만 작품의 비교우위를 논할 수 없고 각각의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음
- 경기도에서 축제를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고, 장르를 뛰어넘는 시각, 공연, 융복합 등 새로운 시도들을 고려할 수 있음
-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과 같이 최고 수준의 예술 행위 중심인 축제를 앞세우고 다음은 프린지 페스티벌과 유사한 청년예술인 중심 분야와 생활예술인 분야를 포함해서 3가지 유형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음
- 축제예산으로 20억 편성된다면 10억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 분야에 투입하고 나머지 청년예술인 분야와 생활예술인 분야에 5억씩 배분한다면 경기도의 큰 축제로서 틀을 갖출 수 있음

□ *****

- 에든버러 축제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연대하면서 결합을 통해 확대되고 주체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임
- 앞으로 경기예술대축제가 지향해야 할 것은 과거처럼 장소 중심적이고 관객관람 중심이 아니라 테마형으로 가야 함
- 축제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 명품 일류요리가 아닌 비빔밥이나

부대찌개처럼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축제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핵심을 형성하고 확대해나가야 할지 전략이 필요함

- 넥스트 웨이브에서 격년제 축제사이에 워크숍, 심포지엄, 쇼케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을 경기예술대축제에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음
-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성장과 창작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, 경기예술대축제도 과정들을 통해 예술가들을 육성하고 그들이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준다면 도움이 될 것임

□ *****

- 전문성과 관점에 따라 계속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축제의 뚜렷한 정체성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임
- 축제를 담아내는 정책적 방향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두고 세워야 할 것이고 발전적 모델을 만들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잘 추진해야 함

□ *****

- 지방자치 시대 이후에 경기도가 가지는 기전문화에 대한 보완과 서울을 탈피한 경기도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은 의미가 있음
-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장이 가능한지와 모든 시군이 참여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의문이 듦
- 공통 집단의 독립성이 존재하는가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되며 정체성이 아닌 지역성이나 주체성이라는 단어로 교체하고 그 속에서 출발해야 할 것임
- ‘예술은 모두의 것이면서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예술은 모든 시대의 것이고 어느 시대의 것도 아니다 예술은 그것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이들의 것이다’ 라는 문장의 의미는 예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함
- 앞으로는 과거지향적인 축제가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,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가야 하고,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형태의 축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함
- 정체성이라는 실체 없는 애매한 단어를 버리고 지역성, 장소성, 소위 말하는 로컬을 기반으로 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, 예술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와 팬데믹 시대에 디지털로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
- 환경, 기후의 이슈가 만들어내는 그린축제 뿐만 아니라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메가축제가 아닌 디지털과 피지컬이 연계된 새로운 축제를 생각해야 함

- 여성, 외국인 노동자, 장애인 등 다양성을 담는 것을 동시대 정신이라고 보며 동시대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축제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지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임
- 축제가 왜 필요하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축제의 핵심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담아내는 이야기가 더 중요함
- 경기도의 권역별 지역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가 중요하며, 예를 들어 경기도 내 철도연결망을 통해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 또한 대표적 키워드가 될 수 있음
-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권장하며, 연구용역보다는 몇 개의 키워드를 정하고 청년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생생한 아이디어를 통해 축제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음
- 각 축제의 아이덴티티가 모여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만들었듯이 여러 개의 경기도 시군 축제의 독립성과 연대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해야 함

□ *****

-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서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워킹그룹을 통해 새로운 주제를 정하고 틀을 만들어 낼 수 있음

□ *****

- 축제의 정책목표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이며, 도민체전 방식으로 31개 시군이 종목별 경쟁하는 장을 만들고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음
- 경기도 DMZ 평화축제와 같은 대축제를 고정으로 하고 권역별 축제를 아울러서 하나 구성하고, 또 하나는 생활예술축제 2~3종목을 경연 방식으로 함
- 에너지, 재활용과 같은 미래를 향한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과거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축제를 만들 수 있음
- 예산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워킹그룹 활동가들과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예술인들이 필요함

□ *****

- 생활문화축제는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어 지원이 중복되며,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축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에든버러 페스티벌처럼 도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글로벌한 축제가 만들어져야 함

-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담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테마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주제를 키워서 예산을 늘려가도록 해야 함
- 앞으로 대형 글로벌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민간 기획자들이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, 프로그램의 방향이 정해진 후에 실행하는 것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음

□ *****

- 담론과 이슈를 담은 장소에서 미래의 새로운 꿈을 꾸는 예술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의제를 만들어 갈 방향성과 예산, 그리고 연구용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음